

## 언어에 대한 시선과 로컬어 육성 전략 — 제주어와 브르타뉴어를 중심으로\*

차윤정\*\* · 장세룡\*\*\*

### | 국문초록 |

국민통합이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조되던 시기, 언어는 ‘통일성을 위한 또는 욕망 실현을 위한’이라는 기준에 따라 위계화되고 그 과정에서 소수어인 로컬어는 소멸되어 왔다. 한편 세계화에 따른 일방적 단일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생태주의적 사고의 확산은, 언어의 공생 및 다양성 추구, 소수어, 로컬어에 대한 가치 인식 등 언어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환경 변화에 따른 로컬어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저에는, 언어를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로 보는 관점과 ‘통일성을 위한 혹은 욕망 실현을 위한’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 즉 시선의 차이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처음 로컬어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관의 다층적 차원에서 로컬어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의 로컬어 보전 활동에서는, 언어를 권리로서 인식하는 태도와 수단 특히 자본으로서 인식하는 태도가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현재 프랑스 공식언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브르타뉴어의 육성 과정 역시, 언어를 권리로서 인식함과 동시에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주어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제주어와 달리 브르타뉴어의 경우는, 언어를 정치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인식이 브르타뉴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사용자들을 정치질서에 따르는 수동적 사용자로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greencha@pusan.ac.kr)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jdragon@pusan.ac.kr)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로컬어의 육성 전략은 권리로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것이 보전될 수 있는 언어환경의 조성은 물론, 자본으로의 언어적 가치나 언어가 가진 정치성도 일정 부분 수용하되 그것이 로컬어의 토대를 부식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언어환경, 언어에 대한 시선, 권리, 자본, 로컬어 육성

## | 차례 |

1. 서론
2. 언어환경과 언어위상
3. 언어에 대한 두 개의 시선
4. 제주의 로컬어 육성 전략
5. 브르타뉴의 로컬어 육성 전략
6. 맺음말

### 1.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특정 상황과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대상과 의사소통을 수행한다. 이렇게 언어는 환경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언어환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언어환경이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의 문맥은 물론 사회환경, 자연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언어문맥뿐만 아니라 언어행위의 배경을 포함한다. 언어환경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적인 것은 앞뒤 문맥과 같은 언어적 환경과 몸짓, 표정, 성조 등의 보조적 언어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언어적인 것은 시간, 장소, 배경, 문화적 전통 등의 사회문화환경, 자연

환경 등으로 구분된다.<sup>1)</sup>

이 가운데 행위로서의 언어 사용 문제나 언어 위상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사회문화적 환경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으로서의 시대나 사회, 문화의 변화는 급속히 혹은 완만하게 언어 사용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문화적 교류와 인간 생활권역의 확대는 의사소통의 매체인 언어들 사이의 빈번한 접촉을 초래하여 다양한 변이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특정 공간을 두고 둘 이상의 언어들에 경합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로컬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던 로컬어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한 공간을 점유하던 로컬의 언어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로컬의 언어나 다른 언어들에 접촉함으로써 변이형을 만들어 내거나 중심의 위치를 놓고 경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합의 결과에 따라 언어들 사이의 수직적 위계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들의 위상이 정립된다. 지금까지 언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로컬어의 위상 하락과 소멸,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소수어 보호라는 일련의 양상들이 나타났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처음 지자체 차원의 로컬어 보전 정책인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2007년 9월 제정, 조례 제 280호)’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로컬인들의 언어적 위계관계에 대한 인식과 로컬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브르타뉴어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로컬어를 보전하고 있다. 브르타뉴어는 불어의 변이형이 아니라 켈트어군에 속하는 독자언어라는 점에서 한 언어 내부의 로컬어인 제주어와는 위상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의 문제는 이들이 국가어의 제정과 함께 소멸의 위기를 겪었다는 점, 중심의 언어에 대한 주변부의 언어라는 점,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언어사용자들에게는 각각이 자명한 언어라는 점 등에서 비교 가능한 상황이다.

---

1) 전병선, 『언어환경연구』, 박이정, 2000, 63~76쪽.

이 글에서는 언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어위상에 관한 문제를 로컬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에 작동하는 원리로서 언어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권리로서의 언어’와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제주어 육성 전략과 로컬어 육성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브로타뉴어의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로컬어의 바람직한 육성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 2.

### 1) 국민통합을 위한 언어정책

국가의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목표였던 국민국가 시대에는 국가 내 언어의 통일이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의 언어의 다양성은 국민들의 귀속감, 정체성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간주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로컬별로 나타나는 언어의 다양한 변이들은 국민들의 통일된 언어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어정책을 실시해 왔다. 표준어 정책의 기본이 되는 표준어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부 주재 아래 만든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처음으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한다”고 밝힌 데에서 출발한다. 이후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상세화되었다.

해방 후 국어정책은 학교문법의 통일 및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국어 순화운동, 한자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통일된 언어생활 및 문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표준어는 초기에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기준이 되었으나 이후 표준

어 사정 원칙이 비체계적이고 표준발음법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면서 표준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0년부터 표준어, 맞춤법 수정 작업, 표준어 수집 작업 등이 진행되어, 1988년 문교부에서 ‘표준어 규정’을 고시하였다. 하지만 1988년에 고시된 표준어 규정에서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 표준어로 규정됨으로써, 표준어 규정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표준어와 로컬어에 관련된 국어정책은 표준어 규정 제정, 표준어 중심의 국어정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표준어 규정 제정과 로컬어의 관계는 표준어의 기능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표준어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표준어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1933년 당시, 표준어 제정을 위한 많은 논의들은 표준어의 필요성과 이상적 기능-표준어의 통일의 기능과 우월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표준어의 통일의 기능에 대한 강조는 당시 언어 사용자들을 포섭하기에 가장 좋은 논리였다. 표준어 제정이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어가 국어가 되어 조선인들에게 가르쳐졌고, 조선어는 방언으로 전락하여 중요한 시험과목에서마저 배제되었던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나라의 운명이 국어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싹트게 했고,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겨레의 얼을 빛내고, 문화적 독립에서 민족적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자주국가의 강력한 힘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있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언어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포섭하는 중요한 논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한 논리에 따라, 표준어가 가진 우월의 기능은 훨씬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현실의 언어를 순화시킨 것이 표준어이며, 이를 사용하게 되면 인격이 도야되고 고상해진다는 것이 표준어가 가진 우월의 기능이다. 이는 곧 로컬의 언어를 포함하여 현실의 언어는 순화되어야 할 언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며, 언어를 통한 문화적 독립을 위해서는 이상적인 언어인 표준어를 통한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표준어의 이상적 기능에 대한 강조는 표준어를 지나치게 이상화시킴으로써 표준어의 신화 창조에 기여하는 한편, 현실의 다양한 로컬어는 부정적 가치를 지닌 언어로 평가절하되기에 이르렀다.<sup>2)</sup> 실제 지금까지도 일반 언어사용자들은 표준어가 아닌 말, 특히 로컬어를 사투리로 인식하고 세련되지 못한 순화해야 할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표준어와 로컬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강력한 표준어 중심의 언어정책과 맞물려 로컬어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표준어 중심의 국어정책은 교육과정과 방송매체를 통해 로컬어를 의식적으로 피해야 할 말로 규정하고 표준어를 유일하게 권장하는 말로 규정하였다.<sup>3)</sup> 표준어 교육과 매스컴을 통한 표준어의 확산은 ‘서울말=표준어, 로컬어=사투리, 서울말은 교양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 이는 표준어와 로컬어를 수직적 위계 관계 속에 배치시키게 되었다.<sup>4)</sup> 표준어와 로컬어의 수직적 배치는 그 언어가 기반하고 있는 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힘과 어울려 더욱 공고해졌다. 그리고 교육과 방송매체를 통해 표준어가 이상적인 언어로서 자리잡아가는 동안 열등하고 비표준적으로 인식된 로컬어는 점차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 2) 문화자본으로서의 언어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세계화의 흐름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2) 차운정, 『지역어의 위상정립을 위한 시론』, 『우리말연구』 25집, 우리말학회, 2009, 393~399쪽 참조.

3) 조규태, 『표준어교육과 지역 언어 교육』, 『한글』 262호, 한글학회, 2003, 262~265쪽 참조.

4) 이러한 논의는 표준어의 필요성과 공적인 언어로서의 기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의의 초점은 로컬어와 표준어가 각각의 중요성과 기능을 갖는 만큼, 그에 따른 언어적 가치를 인정받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당위적인 사실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란 지역, 국가, 민족 단위의 공동체들이 상호 간의 물적 인적 교섭을 확장함으로써 이들 간에 형성되는 보다 큰 공동체로서의 교류와 소통을 세계 일반의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며, 세계 시장의 통합과 무역 장벽의 소멸 및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화 전파와 범세계적 문화의 공유 등의 측면들을 강조하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연계되기도 한다. 세계의 단일화 내지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매력적인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 간 개방을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의 탈피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무한 경쟁체제, 다국적 기업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과 자본 시장의 세계적 통합은 결국 자본의 수출과 경쟁력의 우위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 역시 경제력을 등에 업은 선진국의 문화가 주변부로 확산되면서 범세계적 문화로 공유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이다. 국가 간 혹은 문화 간 경계를 넘는 소통의 매개체로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본과 문화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의 언어가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에서 중심 언어로 자리하게 된다. 현재 영어가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서도 국제어(*lingua franca*)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영어는 21개국에서 유일한 공식어가 되었으며, 또 다른 16개국에서는 다른 언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영어의 확산과 국제어로서의 지위의 확보는 언어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제, 문화적 교류에 사용되는 국제어를 습득하는 것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하며, 따라서 언어능력의 습득은 곧 문화자본의 축적을 의미하

는 것이 되었다.

세계 자유무역체제에 편입함으로써 세계 9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언어적 측면에서도 나타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화는 국어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98년부터 벌어진 영어공용 논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복거일 씨의 『국제어시대의 민족어(1998)』라는 책에서 촉발된 영어공용어 논쟁은 그 뒤 신문지상과 방송 등에서의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공교육 현장으로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토익이나 토플 등의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영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어의 위상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확산된 세계화 분위기 속에 사회적 성공이라는 욕망 실현의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된 영어 습득은, 언어가 가진 다른 의미들을 배경으로 밀어내고 의미의 전면에서 부상하였다. 언어를 욕망 실현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은 언어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언어들 수직적 관계 속에 배치시킨다. 언어를 욕망 실현의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는, 국어에 비해 영어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언어로 인식되고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두 언어 간의 위상 차이는 동일한 현상을 지시할 때 국어 표현보다 영어 표현을 선호하거나 영어 표현을 더 고급스럽게 받아들이는 사용자들의 태도, 영어 학습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 등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국어와 영어 사이의 위계 관계는 로컬어에도 영향을 끼친다. 세계화의 흐름 이전, 로컬에서의 언어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국어와 로컬어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었다. 두 언어 사이의 위계 관계는 국가 통합이라는 필요



성과 표준어가 이상적인 언어라는 편견에 의해, 표준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영어의 급부상은 국어로 명명할 수 있는 표준어의 위상을 하락시켰다. 표준어의 위상 하락은 로컬어의 더 큰 위상 하락으로 이어졌고, 언어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화 흐름의 확산과 함께 언어 능력이 문화자본이라는 인식의 팽배는 로컬어의 가치를 더욱 평가절하하고 필요 없는 말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로컬어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3) 문화의 다양성과 언어 생태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의 자본과 문화의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향의 통합과 동질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언어, 문화,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실천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논의의 기저에는 전 세계 인간 사회는 각각 문화 및 언어 행동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이것들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모든 인간 사회는 그들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서로 다른 방식, 서로 다른 사회 조직 유형, 서로 다른 일련의 믿음·가치·관행, 그리고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지며, 언어를 통한 상황 표현,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방식 등도 다르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인류에 내재하는 ‘문화와 언어의 풍부함’의 총체<sup>5)</sup>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와 중심의 것뿐만이 아니라 소수와 주변의 것 역시 각각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므로 모든 것들이 보전 계승될 때 다양성을 통해 인류의 미래는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이른바 생태학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생태학은

---

5) 유네스코, 『지구의 언어, 생물, 문화 다양성 이해하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5, 21쪽.

1886년 Ernst Haeckel이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문을 가리키는 용어로 처음 사용했다. 그 후 용어의 확산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판단하는 데에 대한 반대 운동에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전체에 대한 강조, 다른 것에 대한 가치 증대가 아니며 상호 발전, 고립이 아니라 접촉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6)</sup> 언어학 분야에서도 생태학적 시각을 받아들여 언어생태학이 나타났다. Haugen(1972)에서는 언어생태학을 특정 언어와 그 환경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하였는데, 작은 것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호문제가 주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언어 개별화자나 언어공동체의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상호작용, 거대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언어에 의한 소수 언어의 억압, 소수 언어의 소외로 인한 언어 사회의 통일, 위기에 직면한 언어의 소멸이나 존속, 이중 언어화자와 다중 언어 화자들에게 일어나는 언어의 균형과 불균형 그리고 그 결과가 생겨나는 추이들이 생태언어학 연구의 주제들이 되었다. 생태언어학은 강하고 거대한 것보다는 약하고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언어 간의 경쟁과 갈등보다는 공생과 협력,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공생하는 언어적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언어 환경 속에서 갈등 관계로 해석되어 온 세계어와 국가어, 다수어와 소수어, 표준어와 로컬어 역시 공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확산에 따라 1960년대 이후 소수 언어, 소멸하는 언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수 언어들의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며 유럽에서는 문학이나 간행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방언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생태 언어학적 사고는 최근 한국에도 도입되어 특히 로컬어의 소멸 문

6) 박육현, 『생태언어학』, 한국문화사, 1999, 11~12쪽.

7) 위의 책, 21~24쪽; 채영희, 『생태학적 언어관에 의한 국어어휘 교육』, 『배달말』 33집, 배달말학회, 2003, 366~368쪽.

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에서 소수언어의 소멸 문제가 국내의 로컬어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로컬어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 육성 전략 등을 주된 논제로 삼고 있다.<sup>8)</sup> 로컬어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사회적 환경변화와도 관련을 맺는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인들의 정체성 형성 및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 측면에서 지역의 언어가 가지는 가치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언어학적 관심의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 로컬어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싹이 트고 있다. 언어를 욕망 실현의 도구로 보고 자본적 가치만을 인식하는 것에서 언어가 가지는 또 다른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가 특정 장소에 몸담고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와 사유 방식이 담겨져 있는 표상체계이자 정보 전달을 넘어 그 사용자들 간의 감정 소통의 매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로컬어의 가치와 필요성을, 단순히 국제어로서의 영어나 표준어로서의 국어와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의 오류를 인식하게 한다. 즉 언어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자신에게 자명한 언어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로컬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4장에서 살펴볼 제주도와 브르타뉴의 로컬어 육성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이다.

---

8) 이상규,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07; 강정희,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1』,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07; 이상규, 『방언의 미학』, 살림, 2007.

### 3.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은 인간의 시선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가치가 부여된다. 언어 역시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중요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인간의 인식 작용을 표상한 체계이자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으로 정의된다. 언어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의를 바라보면, 언어란 사용자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명한 표상체계이며 이를 사용해서 소통한다는 점이 중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언어를 사용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언어권리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언어권리란, 인간이 자신에게 자명한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될 권리,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하여 창조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언어권리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언어를 바라보는 초점이 권리로서의 언어에 맞추어진다. 언어에 대한 가치 판단 시, 언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건들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 언어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그 배경에 놓인 권력이나 경제력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고, 언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어를 또 다른 관점, 즉 ‘통일성을 위한 혹은 욕망 실현을 위한’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통일성과 욕망 실현이라는 명확한 목적은 분명하지 않은 언어의 본래적 가치와 기능을 압도한다. 통일의 기능을 강조한 표준어가 이상적인 언어로 교육과 매체를 통해 파급되고 사회적으로 영

---

9) 차윤정, 『언어권리와 로컬인의 주체 형성—제주로컬어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0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6쪽.

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은, 언어사용자들에게 낯선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언어보다 반드시 배워야 할 언어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력과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가치와 위상이 결정된다. 그 언어가 사용자의 인식과 경험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익숙하며,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언어는 철저하게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본으로서 평가된다. 이러한 시선이 팽배한 언어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언어들 사이의 경합은, 경제적 문화적 권력을 수반한 중심부 언어가 주변부 언어 영역을 잠식하고, 주변부 언어는 절멸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주변부 언어의 소멸은 곧 중심부 언어 위주의 언어적 통일이자 문화, 경제의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 결과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말살되고 언어사용자들은 자명한 언어가 아닌, 낯선 문화와 인식체계를 반영한 언어를 배워서 소통해야 한다.

이렇게 언어를 자본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려는 논리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화의 논리 속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언어를 자원화하고 상품화하려는 태도에도 관련된다. 언어의 상품화는 다른 언어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언어적 차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나타난다. 문화, 관광자원으로서 언어를 인식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언어를 바라보는 커다란 두 개의 시선은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시선의 차이는 인간에게 언어가 무엇인지, 왜 인간에게 언어가 필요한지에 등을 인식하는 태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언어를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의 집이며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라는 관점과 언어를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 혹은 이 도구의 습득이 곧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 언어를 사용하

는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언어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 중에 전자의 관점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우선시 될 때 로컬인들은 자연스러운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로컬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변의 언어인 로컬어의 소멸을 막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언어에 대한 시선을 점검하고 인식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 언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왜’ 이들 언어를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육성해야 하는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들 언어를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로컬인들에게 있어 로컬어가 가진 가치와 중요성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로컬인들이 가진 언어권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제주도의 경우 로컬어의 보전과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제주를 영어 공용화 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제주 사회는 언어환경의 국제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영어 공용화 논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제논리로 영어를 공용화하겠다는 발상은 제주문화를 왜곡, 또는 말살,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영어>표준어>제주로컬어라는 언어 헤게모니를 형성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이것이 로컬인의 정체성을 자극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 제주로컬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 방언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방언보전에 대한 심포지엄, 공청회 등이 활발히 열리고, 지방의회에서 방언보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sup>10)</sup> 2011년에는 제주어가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었다. 이는 로컬인들이 로컬어의 소멸에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로컬어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주에서는 로컬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해 민간단체는 물론,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는 앞에서 논의한 언어에 대한 시선, 언어를 권리로서 인식하는 태도와 수단 특히 자본으로서 인식하는 태도가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제주의 로컬어 육성을 위한 노력 중에 언어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의 제정이다. 이 조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컬어를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조치로서, 2007년 제정되고 2011년 일부를 강화 개정하였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제주어’로 명명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도민이 불편 없이 제주어를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조항에는 제주로컬어가 다른 로컬어와 다르며 로컬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인식과 로컬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언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조례 제정 이전, 언어 간의 자유경쟁 체재 속에서는 로컬어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담보될 수 없다는 데 대한 인식과 그러한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담겨 있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

---

10) 김은희, 『지방자치단체의 언어정책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22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124~126쪽.

11)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http://www.jeju.go.kr/law/contents/index.php?board\\_id=JABUB1&day=2&eb\\_seq=179448&ebcf\\_id=JABUB1&job=detail&mid=0101&month=5&page=1&write\\_method=common&year=2011](http://www.jeju.go.kr/law/contents/index.php?board_id=JABUB1&day=2&eb_seq=179448&ebcf_id=JABUB1&job=detail&mid=0101&month=5&page=1&write_method=common&year=2011) (검색일: 2012. 7. 28)

레」는 제주로컬인들이 언어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도지사가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그 시행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며 제주어 연구와 보전을 위해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제주어연구소를 설치하고, 제주어 교육과정 개설 및 교재 개발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며, 제주어 주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제주어 보전 활동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로컬어가 사용될 수 있는 언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교육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어교육자료를 개발, 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제주어말하기대회 개최, 교사를 위한 제주어 강좌 개설, 학교 단위 제주어 보전 교사동아리 운영, 제주어 교육 시범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주어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재량 활동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제주어 교육을 실시하고, 조종례 시간, 교장 선생님 훈화 등에 제주어를 사용하는 등, 틈새 교육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제주어 보전 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제주어보전회이다. 이 두 단체의 구성원들은 제주어 조례제정의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했던 로컬인들이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제주어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주지역어생태지수조사, 제주도민의 제주어사용실태조사, 제주어사전편찬, 제주어 구술채록 및 자료발간,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을 제시하는 한편, 제주어와 제주문화, 제주어표기법 강좌 개설 및 제주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주어를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어를 유네스코 기준의 소멸위기의 언어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수행했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제주어보전회는 제주어 보급 확대 세미나와 제주어말하기대회 등의 꾸준한 개최, 제주어 사전을 출판 및 ‘제주어선생’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제주어 보전에 일반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회원 중에는 평생 동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였다.

그림책연구회에서는 2004년부터 제주어 그림책을 발간하고 있으며 제주작가회, 애월문화회 같은 문학단체에서도 꾸준히 제주어로 작품활동을 함으로써 제주어를 알리고 보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로컬의 서예가들 역시, ‘제주말씨우리글서예전’ 개최하고 있다. 제주방언연구회, 제주민예총,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민간단체에서도 제주어 연구 및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론 기관 역시, 제주어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주어 소멸의 위기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드는가 하면, ‘삼촌어디감수광’, ‘돌하르방 어드레감수광’ 같이 제주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방송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에서도 제주어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일보, 한라일보 같은 로컬신문들은 제주어와 관련된 기획기사들을 다루고 있다.<sup>12)</sup>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제주어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정체성이 담긴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언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활동들은 직간접적으로 언어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로컬어 육성 전략 중에는 언어를 수단 특히 자본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것도 있다. 로컬 차원에서 언어를 자본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두드러진

---

12) 제주의 로컬어 부흥운동과 제주 로컬인들의 언어권리에 대한 인식은 차윤정, 앞의 논문, 2011, 18~26쪽 참조.

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4조 제주어 보전계획에는 “제주어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어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로컬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 곧 문화자원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로컬어를 문화자원으로 인식하는 기저에는 로컬어가 가진 특수성, 즉 다른 로컬어와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 차이가 경제적 가치와 결부되며 자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로컬어 육성 전략 중 제주어 관광자원화의 대표적인 예는 방언 간판, 방언 상표명 사용 등이다.

제주의 로컬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2009년 실시한 ‘제주지역 간판 문화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어 활용방안 컨설팅’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업주들은 제주어를 간판으로 영업을 한다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48%로 ‘지장이 있다’는 입장 10%를 앞섰다. 일반인들은 응답자 270명 중 198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1명이 ‘조금 지장을 준다’로 응답하였다. 또 일반인들은 제주어 간판이 지역문화와 관광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sup>13)</sup> 이처럼 제주인들은 제주어가 관광에 도움이 되며 경제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들은 실제로 간판 제작에 영향을 끼쳐, 제주에서는 제주어로 된 다양한 상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뭇생이, 편당네식당, 제주살레, 들명날명, 제주물촌, 몹국, 흑도새기, 풍낭, 비바리, 조근아지망, 어멍, 제주올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13)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지역 간판 문화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어 활용방안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2009, 63~68쪽.



또한 로컬어로 상표명을 만드는 것 역시 로컬어의 경제적 가치 인식에 대한 반영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명은 “자신의 상품을 독자적인 것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개성화 차별화하여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상품과 식별시키고 소비자의 계열화를 통하여 시장의 독점화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제주로컬어로 만든 대표적인 상표명으로는 ‘제주마심, 하르방, 올레도새기, 제라한, 마을, 몽생이, 봄데강갈 옷, 갈중이 아람수과, 해올렛’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상표명들은 대부분 제주의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것들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들이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언어로 명명될 때, 그 상품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간판과 상표명들은 제주로컬어의 특징인 아래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제주어와 영어를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형의 제주어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14)</sup> 이러한 관점에서

14) 『제주인뉴스』, 2011. 4. 20. 제주어 활용 간판 잘못 표기 43.3%, 제주특별자치도가 3

보면 자본적 가치를 앞세운 무분별한 로컬어 사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컬어 육성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로컬어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일반인들에게 확산시키고 로컬어를 일상에서 접함으로써 익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로컬어의 육성을 위해 언어권리의 차원과 자본으로의 언어적 가치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사라져가는 언어’로 등록될 만큼 소멸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은, 언어권리의 당위성과 함께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수용한 전략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로컬어의 육성 전략은 권리로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것이 보전될 수 있는 언어환경의 조성은 물론, 자본으로의 언어적 가치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개는 반드시 인간의 언어권리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 언어가 가진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프랑스는 본토에만 20개 언어가 사용되는 다언어국가이고 그 가운데 7개의 로컬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지역이 있다. 공적영역에서 사용되는 불어와 사적영역에서 사용되는 로컬어라는 이중구조가 프랑스가 겪어온 오랜 언어 현실이다. 이때 로컬어란 프랑스 국가영토의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언어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 가운데서 특히 브르타

---

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신고, 허가된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 60개 중에 26개 제주어 표기 간판 43.3%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http://jejui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26109&flag](http://jejui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26109&flag) (검색일: 2012. 8. 1)

뉴어는 불어의 변이형이 아니라 고유한 영국의 켈트어군에 속하는 독자 언어로서, 프랑스어와 체계가 다르다. 이런 점은 한 언어 내부의 로컬어인 제주어와는 위상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의 문제는 이들이 국가어의 제정과 함께 소멸의 위기를 겪었다는 점, 중심의 언어에 대한 주변부의 언어라는 점,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언어사용자들에게는 각각이 자명한 언어라는 등에서 비교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브르타뉴어에 주목하는 것은 프랑스대혁명 이래로 공화정 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언어주의가 주도한 프랑스에서 로컬어가 공적영역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언어권리와 언어소비라는 언어환경의 긴장이 발생한 때문이다.<sup>15)</sup> 브르타뉴에서 1941년 로페즈 에몽(Ropez Hemon)이 독일 점령기를 틈타 브르타뉴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브르타뉴어 교육을 요구했고, 전후에는 국가통합적 언어정책에 반기를 들고 지방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분권운동과 지역문화운동이 출현한 것은 로컬어의 독자적 위상 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다. 1945년 오크학연구소가 설립되고, 알사스 방언학 센터가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될 즈음에 브르타뉴어 센터도 렌느(Rennes)와 브르스트(Brest)에 설립되었다. 브르타뉴어 언어권리운동에서 중요한 활동은 1933년 브르타뉴어 교육운동을 목표로 설립한 조직 ‘Ar Falz’가 1958년 브르스트에서 같은 제목의 잡지를 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민간운동(Mouvement laïque des cultures régionales)’을 전개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일환으로 로컬어 사용 권리 운동을 모색한

---

15) Loi Kuter, “Breton vs French: Language and the Opposition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alues”, D. Nancy ed., *Investigating Obsolescence Studies i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75-89. 브르타뉴어 지역은, Bretagne celtique 혹은 Bretagne bretonnant로 불리는 저지 브르타뉴(Basse-Bretagne)와 남북 피니스테르(Finistère Nord et Finistère Sud), 그리고 코트 뒤 노르와 모르비앙(Côtes-du-Nord et Morbihan)의 서부지역으로 뱅폴(Paimpol)로부터 반느(Vannes)까지 이어진다. 브르타뉴어는 다시 2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코르누아유어(cornouaillais), 레옹어(léonais), 트레기에어(trégorrois)이고, 다른 하나는 반어(vannetais)이다.

사건이다.<sup>16)</sup> 이들은 1)교육의 도구적 언어로서 브르타뉴어 교육을 요구하고, 2) 불어를 우선시하는 이중언어체계를 거부하며, 3)당시 여러 교육자들이 주장한 브르타뉴어를 불어로 말하는 방법을 거부하였다. 이런 선구적 노력에 힘입어 일부 정치 및 문화단체들은 공립학교에서 로컬어 교육의 허용을 요구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도 공식적 억압 대상이던 브르타뉴어 언어권리 실현과 육성에는 교육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름 아닌 1977년 브르타뉴 서북쪽 피니스테르(Finistère)도 랑폴 플루달메조(Lampaul-Ploudalmézeau)에, 사립협회 형식의 학교인 브르타뉴어 몰입 교육학교 ‘디완(Diwan)’을 설립한 것이다.<sup>17)</sup> 이때부터 브르타뉴 각 지역에 비록 재학생은 소수이지만 브르타뉴어로 가르치고 말하고 계산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가 세워졌다. 특히 ‘차이에 대한 권리’를 표방하며 출범한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사회당 정권은 지역어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장관 사바리(Albert Savary)는 당시 대학구마다 천차만별인 로컬어 교육을 강화를 골자로 삼고 지역문화와 지역어의 주체성 존중을 선언하였다. 이를 구현하고자 1981년과 1982년 렌느대학과 브르스트대학에 브르타뉴어 학사과정, 1985년 브르타뉴어 중등교원자격증(CAPES), 1985년에는 ‘지방언어와 문화 국가위원회 (Conseil nationales des langues et cultures régionales)’가 설립되었다. 1989년 7월 10일자 법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교육은 모든 학년에서 로컬어-지방문화연계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로컬어를 가르치는 중등 교사자격증 시험을 점차 확대하고 개방하였다.<sup>18)</sup> 나아가 1989년에는 브

16) “Ar Falz”는 풀베는 반달모양 낫을 의미하며 불어로는 la faucile이다. 조직 자체는 1933년 Yann Sohier가 창설하였다. Herve Abalain, *Histoire de la Langue Bretonne*, Édition Jean-Paul Gisserot, 1995, ch.3.

17) Diwan은 브르타뉴말로 씨앗의 발아(seed sprout)를 말한다.

18) 정예영, 『프랑스의 지방어 보호와 육성 정책』, 『프랑스학연구』 46집, 프랑스학회, 2008, 406쪽; 본고는 본래 브르타뉴어 교육문제를 다루려고 하였으나 최근 이 분야를 세밀

르타뉴어 대학교양과정이 신설되었다.

이런 상황은 로컬어의 언어권리를 새롭게 규정하도록 이끌었다. 대표적인 사건은 1998년 7월 1일 브르타뉴의 쾨페르(Quimper) 시장 베르나르 푸와냥(Bernard Poignant)이 당시 국무총리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거기서 푸와냥은 프랑스의 각 로컬어는 불어와 동등한 프랑스의 문화유산이며 그에 따라서 언어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용어 뿐 아니라 로컬어도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각 지역의 균형발전 뿐 아니라 지방분권화 실현에 로컬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거기서 푸와냥이 제시한 10가지 기본원칙은 로컬어 사용을 정당화하는 기본명제가 되었다. 그 핵심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와 학생의 언어권리가 최우선이다. 2) 불어는 공식언어이다. 3) 프랑스공화국은 자국 영토 내의 로컬어와 지방문화의 존재를 인정한다. 4) 로컬어-지방문화에 관한 정책은 지방분권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5) 공립학교는 통합학교이다. 6) 로컬어를 배우는 것은 자발적 행위이며 이 기능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7) 여러 언어를 아는 것은 하나의 재산이다. 8) 모든 어린이는 같은 수준의 불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9) 정부는 로컬어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10) 정부는 교수법의 다원성을 인정해야 한다.<sup>19)</sup>

1992년 유럽연합의 발족을 알린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sup>20)</sup> 이후 다언어주의는 전유럽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것은 프랑스의 입장을 이중적이게 만들었다. 본래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무한 경쟁의 세계

---

하게 검토한 뛰어난 연구가 나타나서 전개방향을 바꾸었다. 강욱기, 『브르타뉴어 현황과 전승문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23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1, 427-457쪽.

19) 정예영, 위의 논문, 409쪽.

20) 1992년 2월 7일 유럽공동체 12개국 대표자들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되면서 유럽위원회는 1992년 11월 5일 개최될 ‘지역언어 및 소수언어를 위한 유럽헌장’을 회원국들의 서명과 비준을 받고자 제시하였다.

화에 동의하지 않고 문화는 예외라는 문화예외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영어의 언어적 패권에 맞서 프랑스어를 수호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만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방어논리를 전개했다.<sup>21)</sup> 그러나 자국의 로컬어와 소수언어를 억압하며 단일 불어를 강조하는 것은, 영어의 세계화에 맞서 불어의 지위를 다언어주의 논리 차원에서 변호하는 모순된 논리였다. 사실 프랑스 내부에서 국민들은 다언어주의에 별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책적으로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문화적 다양성과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영어 패권주의에 맞서는 다언어주의 옹호도 신뢰받을 수 있는 묘한 상황에 직면했다.<sup>22)</sup> 사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천명하는 기본원칙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인데 이것은 프랑스가 추구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유럽차원으로 확산시킨 것을 의미했다.<sup>23)</sup> 이런 상황에서는 1996년 5월 29일 브르타뉴를 방문한 자크 시라키 로컬정체성을 옹호하면서 유럽현장의 원칙들에 전적인 동의를 표명하고 같은 해, 코르시카를 방문한 알랭 쥐페(Alain Juppé) 총리가 유럽현장 비준을 약속했지만 막상 조인 절차에 큰 진전은 없었다.

로컬어 공인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공식 입장은 유럽현장의 일부내용이 ‘공화국 언어는 불어’라고 명시한 1992년 프랑스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유럽의 언어유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제안하므로 이 목표는 프랑스도 완전히 동의하고 협력가능하다. 2) 그러나 이것은 언어유산을 ‘보호’하는 문제일 뿐이고, 소수집단의 권리,

21) 이재영, 『프랑스의 언어정책-회고와 전망(I)』, 『EU연구』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02, 67쪽; 권영옥, 『세계화 시대의 프랑스 언어정책』, 『EU연구』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02, 122쪽.

22) 홍정표, 『세계화 이후 프랑스의 문화적 가치, 국민 의식,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프랑스어문교육』 제 23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6, 202쪽.

23) 오정숙, 『프랑스의 유럽, 유럽화된 프랑스』, 『프랑스학 연구』 41, 프랑스학회, 2007.



영토 안팎의 언어공동체의 ‘권리’, 개개인의 언어 ‘권리’ 인정 등 문제는 제외시켜 논의한다. 3) 이 일을 담당하고 민족문화유산의 공통요소를 보호하는 활동 책임자는 국가이다.<sup>24)</sup> 요컨대 소수언어와 로컬어 문제는 ‘권리’ 문제가 아니라 문화 ‘유산’ 문제이고 그것의 보호주체는 로컬이 아닌 국가이며, 로컬의 행정기관은 국가의 역할을 단지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국가언어주의의 표명이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1999년 5월 7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연합 장관회담에서 프랑스는 당시 이미 유럽 7개국에서 시행하고 19개국에서 서명한 유럽헌장을 조인했다.<sup>25)</sup> 여기에는 본래 유럽헌장이 내포한 의미는 로컬어와 소수언어를 풍부한 문화적 표현으로 인정한 것이란 유권해석이 작용했고, 헌장도 전부가 아닌 일부 조항(95개 조항 가운데 39조항)만 조인했고, 헌법재판소가 유럽헌장과 프랑스헌법이 서로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협정조인에 불완전한 소극적 태도가 작용했다.<sup>26)</sup>

프랑스가 직면한 문제는 불어의 위상이 날로 쇠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어에 맞서 문화다양성을 앞세운 언어다양성 논의를 주도하면서 불어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sup>27)</sup>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준된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은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 개념만큼이나 인류에게 필요한 것으로 선언되었고 거기서 고유의 문화적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국어 의사표현과 창작 활동이었다. 브르타뉴어를 비롯한 로컬어 공인은

24) François Gouriou-Son, “Europe et Diversité Linguistique-La France et la Charte Européenne des Langues Minoritaires”,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4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381쪽.

25) 선효숙, 『프랑스 방언의 통시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16, 서울대학교 미교문화연구소, 2003, 57~80쪽.

26) 김용현, 『프랑스어 보호와 다언어주의』, 『불어불문학연구』 70, 한국불어불문학회, 2007년 여름호, 283쪽.

27) 김진수, 『EU와 프랑스어』, 『EU연구』 1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04, 155~185쪽.

프랑스가 영어로부터 불어 위상 방어와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결부되어 추진되었다. 프랑스의 정책변화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미국주도의 영어 전지구화에 맞서 다언어주의 정책을 수용할 필요였다. 두번째로 문화의 다원성 개념은 로컬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2001년 10월 16일자 법령으로 언어정책 실무부서인 프랑스어총괄실(DGLF)이 DGLFLF로 바뀐 것은 로컬어 육성 정책과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로컬어 교육의 연속성 문제인데, 정부는 2001~2002학년도부터 로컬어와 문화교육의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다. 즉 로컬어 교육 자문위원회를 두고, 2개국어 교육을 장려하며, 교육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sup>28)</sup>

그럼에도 프랑스가 브르타뉴어를 비롯한 로컬어를 공인하는 정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식어인 불어가 확실하게 지배적이고 대체어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로컬어는 더 이상 국가통합에 위협이 되지 않고 도리어 전통문화로 보호 대상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그것이다.<sup>29)</sup> 다시 말하면 로컬어는 이제 너무나 쇠락하였기에 기존 교육체계에 서서히 편입되기에 이르렀다는 평가<sup>30)</sup>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2008년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은 각 로컬어도 프랑스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상원이 심의를 시작하자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옹호하는 국가 기관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대한 공격’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로컬어 옹호자들이 국수주의적이고 프랑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공격한 사건이 있다. 브르타뉴 지역구의 한 의원은 브르타

28) 정예영, 앞의 논문, 410쪽.

29) 최은순, 『프랑스의 이언어 사용상황과 지역언어 정책에 관한 고찰』, 『프랑스학연구』 25, 프랑스학회, 2003, 547쪽.

30) Louis-Jean Calvet, *Language Wars and Linguistic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김윤경·김영서 옮김, 『언어전쟁』, 한국문화사, 2001.

뉴어로 말하고 노래한다고 조국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이 줄어들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는 언어전쟁이 벌어졌다.

사실 브르타뉴 자체에서는 브르타뉴어 공인이라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보존과 교육 상황이 순조롭지는 않고 있다. 젊은이들의 도시이주로 말미암은 로컬어 사용자의 절대 감소, 학교교육에서 소홀한 취급, 학부모들의 무관심, 거기에 과격한 옹호가 낭만적 자연주의, 무정부적 자치주의 혹은 분리주의로 취급받고 도리어 견제를 심화시키는 현실과 직면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브르타뉴어 공인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시골주민들이 로컬어를 더 잘 보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지식 인층이나 부르주아 계층에서 로컬인으로 주체성을 자각하고 로컬어를 보호하고 공용화하고자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브르타뉴어가 프랑스 소수언어 가운데 주체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표적 견본인 이유가 여기 있다. 브르타뉴어의 언어적 정체성에 관심이 증가하고 옹호하는 현상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브르타뉴어가 처한 언어 정체성 약화가 가져온 현상이란 지적도 있다. 그런 지적이 일리가 없지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기를 자각한 집단의 중심에는 기존에 브르타뉴어를 사용해오던 시골주민들이 아니라 ‘하나이며 불가분리의 브르타뉴(Breizh une et indivisible)’를 표방하는 중산층 도시 출신 배경의 젊은 브르타뉴인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가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브르타뉴어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이중언어 교육 정책의 수혜자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나선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라는 것은, 언어권리를 자각한 주체세력이 증가하는 새로운 기회가 브르타뉴에 주어진 것을 말한다. 이것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도 가담하여 점차 통일된 브르타뉴어를 사용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다.<sup>32)</sup> 그런 의미에서 기존 브

---

31) 최은순, 앞의 논문, 540~541쪽.

르타뉴어가 소멸에 임박한 즈음에 새로운 교육으로 정체성이 탄생한 집단들이 나름대로 일반성을 가진 새로운 브르타뉴어를 통해서 브르타뉴적 정체성을 새롭게 추구하는 신기원에 돌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브르타뉴어 옹호론은 세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반공화주의 왕당파 가톨릭 입장에서 공화주의를 반대하는 논리의 보조물로서 강조되었다. 두번째는 세계화가 가져오는 문화적 획일화에 맞서 기본적으로 반세계화를 표방하는 방어적 논리였다. 세번째는 바로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은 브르타뉴어의 긍정적 가치와 장점을 강조하는 더 공격적 민족주의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Combat breton’을 발간하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에게서 그런 관점을 목격한다.<sup>33)</sup> 이들은 대혁명기에 브르타뉴가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하나이며 불가분리인 프랑스(*la France une et indivisible*)’의 ‘식민지’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sup>34)</sup> 그와 동시에 비가시적 민족주의(*invisible nationalism*)인 브르타뉴 민족주의가 브르타뉴적인 것(*bretonnitude*)을 형성하여 브르타뉴어는 ‘위대한 민중적 정체성’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sup>35)</sup> 이것은 브르타뉴의 현실을 말하는 동시에 브르타뉴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분리주의자 또는 자치주의자의 정치적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르타뉴어 애호가들은 일부 호전적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

32) 2000년에는 최초의 브르타뉴어 지역 텔레비전 방송이 TV BREITH(TV Breizh 브르타뉴 티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었다. 이 TV는 TF1 그룹체인으로서 고전과 최신 영화, 프랑스인들에게 인기 있는 전설과 허구의 영웅에 관한 스펙타클과 버라이어티쇼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상업적 이유를 들어서 브르타뉴어 방송을 점차 줄였고 2011년 1월 부터는 공식적인 브르타뉴어 방송 프로그램은 완전히 사라졌다.

33) Sharif Gemie, “The Politics of Language: Debates and Identities in Contemporary Brittany”, *French Cultural Studies* 13, 2002, pp.145~164.

34) Heather Williams, *Postcolonial Brittany: Literature between Languages*, New York: Peter Lang, 2007, p.32, p.77.

35) Sharif Gemie, *Brittany 1750~1950: The Invisible Nation*, Cardiff: University of Wales, 2007, p.17.

일반적으로 브르타뉴어를 말하는 것이 반드시 브르타뉴 민족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프랑스의 로컬어로서 고유성을 자리 매김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sup>36)</sup> 그리고 미래에는 다수언어 사용자가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프랑스 내부에 새로운 문화적 영토를 만드는 것이 프랑스 국가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온건한 관점을 전략적으로 제시한다.<sup>37)</sup>

그러나 언어권리 실현의 뒷면에 고심할 주제가 있다. 다양한 형식의 브르타뉴어 옹호론과 공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어인 불어 사용이 가져오는 현실적 유리함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세대로부터 브르타뉴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지 않고 브르타뉴어 지각능력도 너무 다르다. 사실 이러한 질적 문제는 모든 소수언어가 직면한 공통적인 현실의 과제 이기에 브르타뉴어만의 고유한 상황은 아니다.<sup>38)</sup> 최근 강조되는 것은 문화자원으로서 로컬어의 가치를 인식하는 언어활동가들은 길거리 표지나 패스트푸드 등을 비롯한 상품선전광고 등으로 공공장소에서 브르타뉴어 사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언어가 가진 문화자본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로컬어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음악그룹 마노(Manau)는 1998년 발매한 앨범 <켈트의 공포(Panique celtique)>를 브르타뉴어로 불러 200만장을 팔고 1999년에는 올해의 랩 앨범 음악상을 받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sup>39)</sup>

---

36) Sharif Gemie, *op. cit.*, 2002, p.155.

37) David Hornsby, “Dedialectalization in France: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Language*, 196-7, 2009, pp.157~180.

38) Rachel Hoare, “An Integrative Approach to Language Attitude and Identity in Brittan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Vol.5, No.1, 2001, pp.73~84.

39) Charles R. Batson, “Panique Celtique: Manau’s Celtic Rap, Breton Cultural Expression, and Contestatory Performance in Contemporary France”, *French Politics, Culture & Society* Vol.27, No.2, 2009, pp.63~83. 브르타뉴어로 불렀지만 불어로 번역하면 Hé! Ho! Le nouveau son Manau...(에,오, 새로운 마노의 노래...)로 시작되는 이 노래의 마

이처럼 브르타뉴어는 제주어와 마찬가지로 노래, 간판이나 상표와 같은 소비상품적 가치로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70년대 이후 로컬어 교육이 실시되면서 브르타뉴어를 배운 세대들은 로컬어로서 브르타뉴어의 위상을 승격시킴으로써, 로컬어의 위상강화를 정치적 요구와 연결시키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언어의 정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강요된 언어 사용을 통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수동적 언어사용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6.

언어위상은 언어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국민통합을 위한 언어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는 표준어가 통일의 기능과 이상적 기능을 앞세우면서 로컬어를 배제, 로컬어의 소멸을 초래했다.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바람은 경제적 가치에 따라 언어들을 위계화 함으로써 로컬 내에서 언어들은 영어>표준어>로컬어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로컬어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무한경쟁을 통한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의 단일화를 지향하는 세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생태주의적 사유는, 표준어와 로컬어의 상호작용, 거대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언어에 의한 소수언어의 억압, 언어의 소멸이나 보존, 언어 간의 경쟁과 갈등보다는 공생과 협력,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언어

---

지막 후렴부만 소개한다. Imagine la Manche, L'Atlantique, des plaines authentiques, 맨섬(영불해협에 있는 섬), 대서양, 진정한 평원들 un bord de côte froid et mystique 차갑고, 신비로운 해변을 상상하라. Une langue gaélique, des fille magnifiques. 장대한 산물들인 골족의 언어 Une culture mystique, belle que l'on appelle celtique 우리가 켈트라고 부르는 아름답고 신비스런 문화.

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그런데 언어환경 변화에 따른 로컬어의 위상 변화의 기저에는 언어에 대한 시선의 문제가 자리한다. 언어를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로 보는 관점과 ‘통일성을 위한 혹은 욕망 실현을 위한’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권리로서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언어는 사용자에게 자명한 언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언어가 되며 언어의 위상도 이러한 인식에 따른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처음 로컬어 보전 정책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2007년 9월 제정, 조례 제 280호)’를 제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언어환경의 국제화 요구에 따른 영어공용화 논의가 있다. 이에 제주어의 위상 약화와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로컬인들의 정체성을 자극하게 되고 다층적 차원에서 로컬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서는 언어에 대한 시선, 언어를 권리로서 인식하는 태도와 수단 특히 자본으로서 인식하는 태도가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주체적 언어사용자로서의 언어권리에 대한 인식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정, 제주어로 명명하기, 민간단체들이나 개인적 차원의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난다. 언어를 수단 특히 자본으로 인식하는 대표적인 예는 로컬어를 관광상품 같은 문화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주인들의 의식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며 이를 반영하는 모습들이 제주어 간판이나 상표명 등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제주에서는 로컬어의 육성을 위해 언어권리의 차원과 자본으로의 언어적 가치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사라져가는 언어’로 등록될 만큼 소멸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은, 언어권리의 당위성과 함께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수용한 전략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반부터 독자적 언어권리를 표방하는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했지만 적잖은 억압 대상이었던 로컬어인 브르타뉴어가 이제는 프랑

스의 공식언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해진 계기는 크게 보면 두가지 측면이 작용했다. 내부적으로 몰입교육학교 디완(Diwan)을 설립하여 교육시킨 브르타뉴인들의 전통적인 언어권리를 찾기 위한 문화운동의 역량을 꼽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 국제언어 역할에서 영어의 상승과 불어의 쇠락 국면이라는 언어정치의 변수와, 유럽연합의 소수언어보호 정책이라는 정치행정적 복합국면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언어권리 실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동원된 개념은 문화다양성과 언어다원주의 개념이다. 본래 이 개념은 국제적으로 프랑스가 영어에 맞서 불어의 위상 수호를 위한 전략적 용어였고 그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불어를 헌법적 언어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브르타뉴어 보존운동 단체들은 이 개념을 공화정 국민국가 프랑스 내부의 소수언어 권리운동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전유했고 그 전략이 일정한 설득력과 성공을 거두었다. 세계화의 단일성이 가져오는 위험을 지적하는데 사용된 언어다양성과 언어권리 개념이 도리어 로컬어의 존립을 정당화하는 데 전유된 것이 브르타뉴어 공인화의 이론적 설득 토대가 된 것이다. 이것은 브르타뉴어가 여전히 국가언어주의의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브르타뉴어는 제주어보다 훨씬 더 먼저 그리고 광범하게 노래, 간판이나 상표와 같은 소비상품적 가치로도 존재하지만 정치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더 강한 점이다. 70년대 이후 로컬어 교육이 실시되면서 브르타뉴어를 배운 세대들은 일차적으로 로컬어로서 브르타뉴어의 위상을, 일정한 자치를 누렸던 중세-근대의 브르타뉴 역사에 입각하여 자치운동 또는 민족주의 운동의 토대로까지 승격시켰다. 이것은 로컬어인 브르타뉴어의 위상강화를 정치적 요구와 연결시키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언어를 정치성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상황은 언어사용자들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질서가 부과하는 수동적 사용자



로 전락시킬 수 있다. 로컬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언어권리를 압도하는 언어 정치성의 강조는 주체적 언어사용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지양되어야 할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로컬어의 육성 전략은 권리로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것이 보전될 수 있는 언어환경의 조성은 물론, 자본으로의 언어적 가치나 언어가 가진 정치성도 일정 부분 수용하되 그것이 로컬어의 토대를 부식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개는 반드시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언어권리에 대한 인식이 중심이 되고 그 위에 로컬의 정치성이나 문화자본적 가치가 부수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육기, 『브르타뉴어 현황과 전승 문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23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1.
- 강정희,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07.
- 권영옥, 『세계화 시대의 프랑스 언어정책』, 『EU연구』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02.
- 김용현, 『프랑스어 보호와 다언어주의』, 『불어불문학연구』 70, 한국불어불문학회, 2007년 여름호.
- 김은희, 『지방자치단체의 언어정책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동북아시아문화연구』 제22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 \_\_\_\_\_, 『지역어 부흥운동의 일한 비교 연구—오키나와와 제주』, 『일본학보』 제83집, 한국일본학회, 2010.
- 김진수, 『EU와 프랑스어』, 『EU연구』 1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04.
- 선효숙, 『프랑스 방언의 통시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16,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3.
- 오정숙, 『프랑스의 유럽, 유럽화된 프랑스』, 『프랑스학 연구』 41, 프랑스학회, 2007.
- 이재영, 『프랑스의 언어정책-회고와 전망(I)』, 『EU연구』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

- 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02.
- 이상규,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07.
- \_\_\_\_\_, 『방언의 미학』, 살림, 2007.
- 전병선, 『언어환경연구』, 박이정, 2000.
- 정예영, 「프랑스의 지방어 보호와 육성 정책」, 『프랑스학연구』 46집, 프랑스학회, 2008.
- 조규태, 「표준어교육과 지역 언어 교육」, 『한글』 262호, 한글학회, 2003.
- 차윤정, 「로컬어의 위상정립을 위한 시론」, 『우리말연구』 25집, 우리말학회, 2009.
- \_\_\_\_\_, 「언어권리와 로컬인의 주체 형성—제주로컬어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0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 채영희, 「생태학적 언어관에 의한 국어어휘 교육」, 『배달말』 33집, 배달말학회, 2003.
- 최은순, 「프랑스 이언어 사용 상황과 지역언어정책에 관한 고찰」, 『프랑스학연구』 33집, 프랑스학회, 2003.
- 홍정표, 「세계화 이후 프랑스의 문화적 가치, 국민 의식,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프랑스어문교육』 제23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6.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지역 간판 문화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어 활용방안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보전 및 육성조례, 2011.
- [http://jejui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26109&flag](http://jejui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26109&flag) (검색일: 2012. 8. 1)
- Batson, Charles R., "Panique Celtique: Manau's Celtic Rap, Breton Cultural Expression, and Contestatory Performance in Contemporary France", *French Politics, Culture & Society*, Vol. 27, No.2, 2009.
- Gemie, Sharif, "The Politics of Language: Debates and Identities in Contemporary Brittany", *French Cultural Studies* 13, 2002.
- \_\_\_\_\_, *Brittany 1750-1950: The Invisible Nation*, Cardiff: University of Wales, 2007.
- Gouriou-Son, François, "Europe et Diversité Linguistique—La France et la Charte Européenne des Langues Minoritaires—",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4집, 프랑스 문화예술학회, 2005.
- Hoare, Rachel, "An Integrative Approach to Language Attitude and Identity in Brittan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Vol.5, No.1, 2001.
- Hornsby, David, "Dedialectalization in France: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Language*, 196-7, 2009.
- Williams, Heather, *Postcolonial Brittany: Literature between Languages*, New York: Peter Lang, 2007.

| Abstract |

## Views on Language and Promotional Strategies for Local Language

— With a Focus on Jeju Language and Breton Language

Cha, Yun-Jung · Jang, Se-Yong

At the time when national integration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was emphasized, language was hierarchicalized according to the so-called standard for 'unity or realization of desire,' and, in the process, local language, which is the language of the minority, have perished. Meanwhile, the spread of ecological thinking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unilateral unification in accordance to globalization, brought about perceptual change of language such as the pursuit for symbiosis and diversity of language and recognition of the value of minority language and local language. However, underlying such perceptual change in accordance to the changes in the language environment, two different views exist, one that views language as human being's inherent right and another that views it as a mean for specific purpose such as the 'unity or realization of desire.'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legislated a local language promotion ordinance and making efforts at both private and governmental multi-layered level to preserve the local language. In the local language preservation activities in Jeju Island, the attitude that perceives language as a right and the attitude that perceives language as a

means, or in particular, as a capital complexly revealed. The process of promoting Breton language, which is currently securing the status as the official language of France, is not different from the case of Jeju language in that language is simultaneously perceived as a right and as a capital. However, unlike Jeju language, Breton language reveals a strong attitude towards perceiving language as political asset. It is true that such perception contributed to raising the status of Breton language, but the problem in this case is that such attitude degraded the language users to passive users following the political order. Therefore, promotional strategies for local language should spread the perception of language as a right, create a language environment where such perception can be preserved. And while partially accepting the value of language as a capital or for its political quality, promotional strategies for local language should be developed in ways that do not corrode the foundation of the local language.

Key Words: Language Environment, Views on Language, Right, Capital,  
Local Language Promotion

· 논문투고일: 2012년 8월 5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5일 · 게재결정일: 2012년 10월 15일